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22(금) ~ 2024.3.28(목)

제공일시 2023 04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22(금) ~ 2024.3.28(목)

제공일시 2024 04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엔 국제해사기구 탄소 배출에 비용 매긴다, 사상 첫 국제 온실가스 부담금

- 국제해사기구(IMO)가 전 세계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국제 온실가스 부담금 제도를 도입함
-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런던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2027년부터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탄소 배출과 관련한 부담금이 정해지는 전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됨
- 단, 블룸버그는 부담금 규모와 납부처, 해당 자금으로 실천할 기후대응 활동 등 앞으로 논의돼야 할 것들이 많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비즈니스포스트 2024.3.25\) 손영호 기자](#)

2. 미국 정부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60억달러 보조금, 엑손모빌도 지원받는다

-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진행되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함
- 미국 에너지부는 25일(현지시각) 자국 20개 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33개 산업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보조금 총 60억달러(약 8조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제철소 방문 과정에서 구체적 지원 계획을 공개함
-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는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 알루미늄, 화학, 식료품, 펄프 업계가 포함됨

[\(비즈니스포스트 2024.3.26\) 손영호 기자](#)

3. 유럽, 첫 '원자력 정상회의'... '탈원전'에서 유턴

- 유럽이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에 '탈(脫)원전' 기조에서 유턴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를 개최함
- 화석연료 사용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유럽에서 원자력에만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임
-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는 확 달라진 유럽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단, 원전 확대 시 러시아 핵연료 의존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 고민거리임

[\(헤럴드경제 2024.3.22\) 김현경 기자](#)

4. “中 정부기관서 美 인텔칩 사실상 퇴출”

- 중국이 정부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PC)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MIT)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 및 서버 조달과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새 가이드라인은 정부기관과 향(鄉)급 이상 단위 당조직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장치와 운영체제(OS)를 구매할 것을 규정함
-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를 비롯한 외국산 OS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신 중국 제품을 쓸 것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FT는 전함

[\(서울신문 2024.3.25\) 류지영 기자](#)

1. “기후위기, 금융리스크로 나타나” 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15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정책 등을 마련할 계획임
- 27일 KB·신한·하나·우리·NH·대구·부산 등 은행과 삼성·교보·한화·신한 등 생명보험업권, 삼성·현대·KB·코리안리 등 손해보험업권 등 15개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TF 첫 회의를 가짐
-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해 시나리오별 금융회사 영향 측정, 측정 결과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임
- 금융회사는 시나리오별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 및 투자 등의 손실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NSP통신 2024.3.27) 김수인 기자

2. 韓-EU, 연내 240여억원 규모 반도체·6G 통신 공동 연구 추진

- 우리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EU와 뉴로모픽컴퓨팅(인간 뇌 구조처럼 병렬 형태 연산 방식을 모방한 회로) 등 반도체 분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선 전송 성능 향상 등 6G 기술 공동 연구에 나섬
- 3년간 진행되는 두 분야 연구 총규모는 1700만유로(약 247억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열고, 공동 연구 추진 등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힘
-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반도체 △양자기술 △비온드 5G/6G △AI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공동 연구 등을 합의함

(뉴시스 2024.3.27) 윤정민 기자

3. 전기차 폐배터리서 추출한 니켈·코발트, 재생원료로 재탄생

-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힘
-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이날 오후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함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해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임.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뉴시스 2024.3.26) 구무서 기자

4. 정부, 기후변화 물 위기 해소 위해 삼성전자·네이버 등과 ‘맞손’

-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들과 손을 잡음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2일 국내 기업과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힘
- 협약에 참석한 기업은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 등임
-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임

(이투데이 2024.3.21) 노승길 기자

1. MS, 스타트업과 바이오차 탄소제거 계약 연달아 체결

- 바이오차(Biochar) 생산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의 탄소 제거 스타트업 ‘더 넥스트 150(The Next 150)’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바이오차 탄소 크레딧 6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카본헤럴드, ESG 투데이가 보도함
- MS와 더 넥스트 150과의 계약은 지난해 12월 카본퓨처가 볼리비아에 본사를 둔 엑소마드 그린컨셉 시온(Exomad Green Concepción) 프로젝트와 협력해 바이오차 탄소 제거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중남미 기반 바이오차 탄소 크레딧 계약을 통해 이 지역 탄소 제거를 늘리고자 하는 것임

(임팩트온 2024.3.27) 유미지 기자

2. 테슬라, 전기차·오퍼머스에 5G 기술 접목 추진

-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오퍼머스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테슬라라티가 26일(현지시각) 보도함
- 테슬라라티는 테슬라가 최근 올린 사원 채용 공고를 통해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엔지니어를 모집 중이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같이 전함
- 자신을 테슬라 선임 엔지니어라고 밝힌 한 관계자는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 링크드인에 올린 채용 공고에서 “테슬라 제품들에 5G 서비스를 접목하는 업무와 관련해 뛰어난 엔지니어를 모집 중”이라고 밝힘

(글로벌이코노믹 2024.3.27) 김현철 기자

3. 스페인 이베르드롤라, 전기화 & 재생에너지에 59조원 투자하고 1만명 신규채용

- 스페인의 거대 에너지 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가 미래는 전기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전력망과 재생에너지에 거액을 쏟아붓기로 함
- 이베르드롤라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에 410억유로(약 59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1만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ESG투데이가 21일(현지시각) 전함
- 1만명 신규 채용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50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임팩트온 2024.3.25) 홍영표 기자

4. 아이오나, 북미 시장에 전기차 고속 충전 네트워크 확장 시작

- 7개 자동차 브랜드가 북미 시장에 고속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 출범한 아이오나(IONNA)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 아이오나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GM, BMW, 혼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로,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브랜드들임
- 아이오나는 폭발적이고 기민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보다 빠르게 북미 충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사용성’의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이오나는 공식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곧바로 충전 네트워크를 설치할 계획이며, 북미 지역에 3000개 이상의 충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서울경제 2024.3.21) 김학수 기자

5. SK·HD현대 참여 美 테라파워 첫 원전 6월 착공 ‘차질’... 美 당국 계획 보강 요구

-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가 6월에 미국 내 첫 SMR 건설을 시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짐
-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각) 미국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테라파워에 40쪽에 달하는 안전과 환경에 관한 ‘사전 검토 준비 평가’ 보고서를 보내 ‘추가 작업’을 요구했다고 보도함
- 로이터는 NRC의 사전 평가로 인해 테라파워가 와이오밍주에 최초로 SMR 원전을 건설하려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3.24) 국기연 기자

1. 현대차그룹, 최대 산유국 사우디에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MOU... 수소·AAM도 계획/현대차그룹,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아프리카 사회·경제 발전 방안 모색할 것”

- 현대자동차그룹은 24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RSG’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힘. RSG는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추진 주체임
- 현대차그룹은 RSG와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실증하고,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협업 기회 발굴 및 추진을 협력하기로 함
- 또, 현대차그룹은 25일 한·아프리카재단, 영국 런던대학교 SOAS 산하 ‘지속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CSST)’와 함께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함
- 이번 포럼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한·아프리카 공동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전기신문 2024.3.25) 김재웅 기자
(메트로신문 2024.3.25) 양성운 기자

2.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 “핵심 광물 확보”

-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에 나섬
- 에코프로는 최근 약 1100만달러(약 147억원)를 투자해 중국 GEM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니켈 제련소 ‘그린 에코 니켈’ 지분 9%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힘. 이번 계약으로 에코프로는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니켈을 추가 확보하게 됨
- 에코프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그린 에코 니켈’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뷰어스 2024.3.25) 손기호 기자

3. 삼양사,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사업 본격화

- 삼양사가 고체 전해질 개발·제조 기업 ‘솔리드 아이오닉스’에 추가 투자를 하며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사업 진출을 본격화함
- 26일 삼양사는 전날 솔리드아이오닉스와 3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삼양사는 이번 투자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고체 전해질과 주원료인 황화 리튬(Li₂S)을 사업 포트폴리오로 확보했다고 밝힘
- 솔리드아이오닉스는 개발 중인 제품 상업화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됨

(매일경제 2024.3.26) 정유정 기자

4. SK에코플랜트,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조성/SK에코플랜트, 베트남서 700MW 태양광·풍력발전 구축 추진

- SK에코플랜트가 환경부와 국내 폐배터리再生资源원 인증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함.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6일 환경부와 ‘폐배터리再生资源원 인증 시범사업’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힘
- 이번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의再生资源원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임. 향후 폐배터리 인증체계를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임
- 또, SK에코플랜트가 베트남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BCGE(Bamboo Capital Group Energy)와 손잡고 700M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한다고 22일 밝힘
- 이번 협약은 베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사의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됨

(달사이트 2024.3.27) 김정은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3.24) 홍정화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3.22(금) ~ 2024.3.28(목)

제공일시 2024 04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와 유럽 배기가스 기준 완화... 내연기관 제조사들 반색

- 미국과 유럽이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환경 규제와 전기차 신차 목표를 완화하면서 미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이 반색하고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승용차, 소형 트럭 및 중형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을 20일(현지시각) 최종적으로 발표했는데, 지난해 4월 발표한 초안보다 완화됨
- 원래 초안에서는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56% 줄이려 했으나, 최종안은 49%로 낮춤. 전기차 채택 목표 또한 낮췄는데, 2032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판매비중을 67%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56%로 낮춤. 대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13%, 하이브리드(HV) 차량은 3%로 조정함. 이 규정은 2027~2032년 생산되는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 등에 적용됨
- EU 또한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존 안건보다 완화된 내용의 유로7(Euro7) 환경 규제를 의회에서 승인함. 원래 디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가솔린 차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60mg/km)이 담겼으나 최종안에서 삭제됐고, 도입 시점도 3년가량 연기됨
- 미국과 유럽이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미국 자동차노조원들의 반발과 중간선거 등의 영향 때문임.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체 차량의 7.6%로 저조한 편임
- 이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임. EU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규제를 'E-퓨얼' 허용으로 바꾸는 등 독일을 포함한 기존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에게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줌
- 지속가능성 전문 미디어 그린비즈에 의하면, 미 환경청(EPA)은 2032년 이후 연식 차량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함
- 한편, 미 환경보호청(EPA)을 대표하는 법무부 변호사 수 첸은 이 규칙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EV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첸 변호사는 "EPA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배출 제어 기술"이라고 말함
-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덴 베커 소장은 "이 규칙은 기후에 대한 모든 국가의 가장 큰 단일 단계일 수 있지만 EPA는 대형 자동차, 대형 석유 및 자동차 딜러의 압력에 굴복하고, 포드 F150 픽업 트럭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허점으로 계획을 수수께끼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함
- 반면, 바이든의 재선 캠페인을 지지해 온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번 규칙을 환영함
-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 에너지부가 완화되고 EV의 마일리지 등급을 낮추는 새로운 규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구제책을 얻음. 이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대표적인 미국 자동차 3사가 2032년까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과되는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임

(임팩트는 2024.3.25) 홍명표 기자